

교통사고로부터 '한 생명 더 살리기' 열정 쏟아

순창경찰서 윤근영 경위, 삽화 홍보포스터 · 교통안전 바람개비 · 신발뒤꿈치 부착 야광반사지 등 제작 배포

오늘도 교통사고로부터 한 생명 더 살리기를 가장 보람으로 여기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순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장 윤근영 경위(사진)가 그 주인공이다.

윤 계장은 순창지역 인구 30%를 점유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부터 항상 노출돼 있어 교통사고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인간미를 쓰고 있다.

윤 계장은 지역에서 빈발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들을 삽화 형태의 홍보포스터로 제작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병원, 대중교통 등에 게시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수단 실버보행기(유모차)와 전동휠체어에 도넛 최초 붙여라 교통안전 바람개비, 신발뒤꿈치 부착 야광반사지(호통볼) 제작, 입순여객과 무상광고 협의를 통해 차량 옆면에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애 쓰고 있다.

특히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통학차



량 승차보호기인 '천사의 날개'를 기증받아 화원 버스 등에 부착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고마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 뿐이 아니다.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

해 무단횡단 방지 간이중앙분리대와 교차로 신호 및 과속 방지 다기능 카메라 설치, 고정식 무인 단속카메라 이설, 과속방지턱 · 반사경 설치, 중앙선 절선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보안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년 130여만 명이 방문하는 순창의 대표적 관광 유원지인 행락철 강천산 주변 교통관리를 비롯 순창정류소, 전북역전마리대, 전북도민체육, 기타 지역 내 각종 행사 소통유주 현장 교통관리로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던 사망사고를 지난해에는 27%(15 → 11명)로 크게 줄여 새로운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교통사고 예방 업무추진 능력은 경찰내부에서도 인정을 받아 모범공무원 선발, 경찰의날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경찰청장 등 그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 계장은 "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관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1건도 발생치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연말까지 단 1건의 사망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주민들에게 안전한 순창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 평화1동 바르게살기협, 새봄맞이 공원 환경정비활동

평화1동 직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20여명은 21일 감나무공원을 찾아 쓰레기줍기, 불법광고물 제거, 잡초뽑기, 파손된 공원 시설물 점검 등 관내 환경정비활동을 펼쳤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복환 회장은 "지역주민의 일일으로서 회원들과 함께 공익봉사활동을 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우리가 평화1동 주민인 만큼 주민의식을 가지고 주민 모두가 공원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화1동 김인기 동장은 "그동안 공원은 공공기관 주도로 공공기관의 예산과 인력으로만 관리해왔으나 "주민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의 애착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공민정리운동과 같은 실질적인 활동이 많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완산경찰서, 살인미수 피의자 검거 유공 경찰관 표창

완산경찰서는 21일 신속한 신고 대처로 살인미수 피의자를 검거에 공로가 큰 112상황실 김성수 경위와 이상영 경사에게 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성수 경위는 지난 1월 21일 오전 10시 13분께 "어떤 남자가 칼로 등을 찔렀다"는 112신고를 접수, 관할서 긴급배치 지령을 통해 전 경찰관을 신속히 동원해 살인미수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또한 이상영 경사는 신고 접수 10분 만에 칼을 들고 있는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유공으로 표창을 받았다.

장현영 완산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본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형사 출동준비태세를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인진수 기자



전주시 인후2동, 노인일자리사업 현장방문 격려

인후2동은 21일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의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달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5개조 39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등 깨끗한 동네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염익준 인후2동장은 "어르신들 덕분에 인후동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하게 됐다"며 "사업기간 내내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주시길"을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서신지구대, 심야 차량절도 예방 순찰 강화

서신지구대는 심야시간대 차량절도 범죄를 막기 위해 순찰을 강화했다.

서신지구대는 21일 재개발로 인한 공 · 폐가 밀집지역 일대와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주차된 차량의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에 나섰다.

이원희 서신지구대장은 "차량절도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급적 CCTV가 비추고 주변이 밝은 곳에 주차하고, 차량 문을 잠그고 내리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와 협조해 CCTV 설치 확충을 건의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원광대학교, 6개 제약 관련 기관과 산 · 학 협력 협약 체결

원광대학교는 6개 제약 관련 기관과 각 기관의 고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산 · 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8일 원광대 이영미 산학협력단장과 동국제약과 알브젠, 한울바이오파마, 코오롱제약, 중원제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산 · 학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학생 직무능력 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들 참여 기관들은 산업체 현장실습, 인턴십 및 취업연계 협력을 비롯해 정보 및 인력교류,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과 시제품제작 등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해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영미 산학협력단장은 "각자의 역량이 강한 중견기업과 MOU를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학생취업을 향상과 더불어 청년실업 문제 극복 및 원광대 가족회사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부안 서해로타리클럽, 군민 대상 무료 의료봉사 실시

부안 서해로타리클럽이 희망의 계절 봄을 맞아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의료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0일 진행된 의료봉사는 부안남초등학교 강당에서 내과, 외과, 치과, 침술 및 치료, 안경 및 보청기AS 등 6개 분야 10명의 전문 의료진과 부안 서해로타리클럽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부안 서해로타리클럽과 부안 성모병원, 백제한의원, 이종권 치과, 배리안병원, 가나의료기 등 많은 전문의료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무료 진료로 의료소외계층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인도주의의 글로벌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무료진료를 받은 부안군민들은 "부안서해로타리클럽의 무료 의료봉사 진료가 평소 거리가 멀고 비용 부담으로 미뤄왔던 링거 수액 및 안경, 보청기 수리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고마움 따름이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재일 부안읍장은 "무료 의료봉사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형대 서해로타리 회장은 "서해로타리클럽은 무료진료 외에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시 중화신2동 마을가꾸기 회원, 인정공원 장미터널 정비

중화신2동 마을가꾸기 회원 20여명은 21일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관내 인정공원 장미터널을 찾아 가지치기 등 새봄맞이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인정공원 장미터널은 2009년에 조성돼 올해 7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주야를 불문하고 시민힐링 및 신체를 즐기는 주민들로 붐비고 있다.

중화신2동 김진영 동장은 "장미가 만개하기 전에 장미터널 등 공원정비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을가꾸기협의회 조시복 회장은 "비쁜 와중에도 많은 회원들이 장미터널 정비에 참여해 고맙다"며 "공원정비 뿐만 아니라 회원 간 화합도 도모할 수 있어 보람된 일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중화신2동을 가꾸는데 더욱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완산구, 제설용 모래주머니 회수작업 마무리

완산구는 21일 관내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배치한 겨울철 도로 제설용 모래주머니 회수작업을 마무리했다.

완산구청에서는 겨울 동안 보행자의 통행과 원활한 차량 운행을 위해 골목이나 교량 등에 모래주머니와 적사함을 설치하고 설해대책에 단점을 기해왔다.

특히 은고을로, 기린대로 이면도로 취약지 등 15개 구간 534개소에 모래주머니 2만개, 시청 주변 등 30개 구간에 90개소 적사함을 각각 배치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올해 많은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시행, 시민불편을 최소화했다.

완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행자 통행불편과 거리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제설용 모래주머니 수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 화산지구대, 태평동 재개발구역 공 · 폐가 안전점검

화산지구대는 21일 우범지역인 관내 태평동 재개발구역 공 · 폐가 26개소를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방치된 폐 · 공가가 가을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범죄자의 도피처와 은신처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주민들은 평소 인적이 드물어 범죄 우려가 있는데 경찰의 안전점검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평이다.

김상길 화산지구대장은 "우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매일)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350-99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제노송)	
부회장 김승곤 전무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985-4118	중원지사 010-9988-66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9-6989
삼천지사 010-2333-4798	인후지사 249-6865	김제지사 547-6865	임실지사 010-99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04
호지사 010-9985-9835	물북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4985	정읍지사 539-3367
	고신지사 445-0157	순창지사 653-9444	장수지사 010-3862-8957
	익산지사 899-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